

동중부 **CLC** 공동 사도직 빈곤과 세계화 3월 기도 주제와 실천 제안

1. 3월 기도 주제: "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" (시편 46,10)
"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": 마음의 무장해제와 복음적 비폭력, 국경 없는 자비, 장벽 없는 기도

2. 3월 기도 주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.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해 봅니다.
 - 1) 내면의 비폭력과 '마음의 무장 해제':
 - 언어의 비폭력: 보복하고 싶거나 화가 나는 순간, 가시 돌친 말을 멈추고 '허의 비폭력'을 실천하는 것입니다. 일상의 대화에서 비난 대신 이해의 언어를 선택해 보세요
 - 2) '단순한 삶'을 통한 연대: 마침 기도에 나오는 "소박하게 살으로써 타인의 생계 수단을 빼앗지 않게 하소서"라는 구절은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.
 - 책임 있는 소비: 가난한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며 만들어진 제품을 멀리하고, 공정무역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훌륭한 복음적 실천입니다.
 - 나눔의 실천: 내가 조금 덜 쓰고 남은 것을 전쟁 피해 지역이나 이주민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.
 - 3)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 내기: 우리 동중부 **CLC** 회원들도 이민자들임을 기억하며 실천합시다.
 -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: 우리 곁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'위험한 존재'가 아닌, 우리와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하느님의 자녀'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.
 - 평화를 위한 청원과 연대: 전쟁 반대나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거나, 공동체에서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도 '능동적인 비폭력'의 한 형태입니다.
 - 4)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자 되기
 - 멈춤의 미학: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,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달려들기보다 잠시 '멈추고' 하느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도록 노력합니다.
 - 화해의 손길: 먼저 사과하고,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운했던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소박한 평화 만들기(Peacemaking)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.

KCLC 동중부- 온라인 기도

사도직

채 민아 만나

드림

16일

2026년 3월